

23년 2월 7일
퇴직연금 레터

< 본 글은 순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으며, 매수/매도 추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결을 가지게 될 때에야 연속적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참조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투자자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면 내 투자 체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투자 체력을 기를 의지가 약하다면 투자 잘하는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에 수소문하여 찾아내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스스로 좋은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단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파트너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운용 메일은 하나의 제안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던 엄청난 하락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시작되는 23년 초입니다. 대략 2500~2650을 넘을 때까지의 시장 주체는 외국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그간 장기적인 하락으로 손상된 심리와 체력을 회복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외국인들도 똑심있게 들어오려면, 좀 더 확실히 개선된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 시계 중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반전이고, 또 하나는 주주친화적 문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대와 희망의 영역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메일에서 - 거의 1년전 메일이네요 -
다음과 같은 제안포트폴리오를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리밸런싱 제안 포트폴리오>

1. 현금 : 30%
2. 마이다스 책임투자증권 펀드 : 5~10%
3. KODEX 은행 ETF : 5~10%
4. KODEX 증권ETF : 20~35%
5. KODEX 건설 ETF : 10~20%
6. TIGER 방송통신 ETF : 0%

23년 2월 7일
퇴직연금 레터

<변경 포트폴리오(ISA)>

1. 현금(보수적) or **KODEX 국고채3년 (114260)**(다소 공격적)
2. **마이더스 책임투자증권 펀드** : 5 ~ 10%
3. **KODEX 은행 ETF** : 5 ~ 10%
4. **KODEX 증권ETF** : 20 ~ 35%
5. **KODEX 건설 ETF** : 10 ~ 20%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분들을 위해 개별 종목 편입이 가능한 ISA에서는 일부 변형된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추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ISA계좌를 위한 변형 포트폴리오>

1. **삼성전기**
2. **소폭의 조선주**
3. **철강 ETF**

작년의 추가 제안 판단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피드백을 가지게 되나, 올해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약간의 수익과 함께 탈출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저희는 작년 후반 금리 급등에 맞춰 일부 살짝 변형한 제안을 이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금을 모두 은행 장기 예금으로 돌리자!!”

작년 10월부터 **채권** 매입 이야기를 한층 강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3개월만에 판세가 또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의 하락 속도라면, 1분기를 지날 시점의 채권 매력도는 현저히 빠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 중 4.3%** 이상 되는 금융상품은 빠르게 편입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나 IRP처럼 안전자산, 현금성 자산을 30% 수준 보유해야 하는 퇴직연금에서는 정기예금이나 증권금융 예금 등을 편입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3% 중반 언더로 떨어지게 될 경우, 정기예금은 1년 이하 기간의 상품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3년 2월 7일
퇴직연금 레터

특히나 IRP처럼 안전자산, 현금성 자산을 30% 수준 보유해야 하는 퇴직연금에서는 정기에금이나 증권금융 예금 등을 편입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3% 중반 언더로 떨어지게 될 경우, 정기에금은 1년 이하 기간의 상품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포트는 지금 당장은 바꿀 필요를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은 압축적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절대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회복은 하반기에 가서야 가시화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수급과 기대가 시장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황 레터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관련된 글을 다시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터에서의 제안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IRP, ISA 제안 포트폴리오>

1. 2~3년 4%대 중반 정기에금 or 증권금융 예금성 상품
(금리가 더 떨어지면 1년짜리 정기 예금이나 증권금융 상품) 30%
2. 마이다스 책임투자증권 펀드 : 5 ~ 10%
3. KODEX 은행 ETF : 5 ~ 10%
4. KODEX 증권 ETF 20 ~ 35%
5. KODEX 건설 ETF : 10 ~ 20%

퇴직연금은 그 특성상 나의 노년과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제 1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P의 경우 현재 주식보다는 ETF로 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제안 드립니다.

향후 저희가 퇴직연금펀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아무 생각없이 저희 펀드를 가입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펀드를 만드는 작업은 한국에서는 많이 어려운 일이 되기에 그러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월 7일
퇴직연금 레터

위에 언급된 ETF 중 은행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상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익이 훼손되더라도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방은 두
텅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안정적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판단에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23년 되시길 빌고, 저희도 장기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자산 형성을 돕는 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식장르기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곽상준 올림.